

# 오늘날 建築의 國際的狀況과 傾向

崔 昌 奎

“人類文化를 構築하는 者는 누구인가?”

韓國에는 周知하는바와 같이 建築關係 三團體가 있다. 學會는 創立後 30餘年이 되고, 家協20餘年, 土協은 10餘年이 된다.

이렇게 建築에 關한 團體가 왜 셋씩이나 있느냐에 대해서 一般國民들은 理解가 '잘 가지 않는 模樣이다. 何如間에 建築에 關한 團體가 적어서 좋을리 없고 많아서 나쁠리도 없다. 人類가 이地球에 定住하기 始作해서 몇萬年이 지났다던가 왜 살아야만 했던가는 斯界學派에 關한 일이라 치고, 人類가 地球를 生活의 場으로 삼고 現在까지 살아왔고 또 未來의 未知數의 期間 살것이라는데는 異意가 없을것이다. 다만 왜 사는가. 또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가 우리들의 關心事인것만 같다. 이 問題를 究明한다면 사는 目的이나 보람,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自明해 질것만 같다.

사람들은 말한다. 名譽니 富貴니 또는 宗教的으로 極樂이나 天堂으로 가는 것들에 莫然하나마 焦點을 맞추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建築人들은 그들의 職能的인 立場에서 人類의 文化를 構築한다는데 그 모든 것을 拂着시켜야만 할것 같다.

왜냐하면 人類의 歷史를 훑어보아도 數많은 英雄豪傑들 思想家, 宗教家, 政治家, 經倫家, 藝術家들이 大活躍을 해서 오늘의 社會까지 이어온것은 事實이나 個人이나 特定民族이나, 特定地域의 總合의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人類라는 單位에서의 文化를 쌓아왔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人類의 窮極的인 生의 目的이나 보람이란 결국 어느 民族이 地球上의 人類라는 單位에서의 文化를 이룩했느냐가 더욱 重要한 일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文化라는 抽象的인 單語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分野로 細分되어서 列挙하기가 어려울 程度이지만 이 數많은 分野中에서도 建築文化라는 分野에 屬해 있는 우리의 立場에서 볼때 그 어느 分野보다도 남아서이를 證明해 주는

것이 建築以外에 또 무엇이 있는가 말이다.

때문에 人類文化를 構築하는 者는 바로 建築家들이 라는 것을 強調하고 싶은 것이다.

不幸히도 韓國에 있어서는 國民은 勿論이거니와 當事者들인 建築家 自身들도 巨暢한 이야기이지만 人類의 目的이랄까, 使命이랄까라고 할 文化의 構築者라는 것을 世界에서 가장 理解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U. I. A. 같은 場所에서 世界의 모든 建築家들이 各々 文化形成에 關해서는 建築家가 最高의 責任者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들 생각하고 있었다.

韓國의 建築家들도 韓國文化 또는 世界文化, 人類文化形成에 대한 責任感같은 것을 認識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今世紀末에서의 우리에게 놓여진 課題는?”

現 國際社會는 價值觀이나 意識構造가 너무도 多樣化되어 마치 混亂時代를 彷彿케하고 있다. 이 混亂속에서 不信·不確定, 恐怖마저 느끼게 한다. 이러한 作用들이 결국은 人間을 極端的인 個人主義로 몰고 갔다.

最少限 어떤 時代의 文化를 形成해 갈려면 共通意識, 共感意識, 普遍意識, 普遍樣式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생각되는데 建築部門에서 C. I. A. M이 이룩한 現代建築 및 都市計劃의 原則이라든가 第94條의 長文으로 된 “아테네憲章” 등은 世界建築家들에 어떤 方向性을 提示해 준것이라고 생각되고 事實 그것이 原動力이 되어서 今世紀의 建築文化가 開花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것으로 생각된다.

今世紀初부터 地球上에 이룩된 建築이나 都市計劃들을 分析해 보면 바로 이 憲章의 具顯化라고 볼수 있다.

이런 意味에서 본다면 今世紀 後半紀의 建築文化에 대한 課題를 우리들은 아직 兪見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問題는 우리뿐만 아니라 世界의 모든 建築家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U. I. A 라는 國際機構內에서도 이 問

題探究의 具體的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再昨年 Mexico 大會에서 보고 느꼈다.

即 自發的인 建築運動을(各國의) 받아들여서 이것을 統合해서 地球的, 人類的인 立場에서 提示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1981年度 폴란드 바르샤바 大會때는 무엇인가 具體的인 提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 “住居施設과 建築家の 社会的 地位”

地球上의 人類的 住居施設이나 建築家들의 社会的 地位에 관한 問題는 特定國家나 特定民族에 局限된 問題로 解決해서는 안되고 또 할 수도 없다고 본다.

現在 가장 巨大한 世界的인 組織으로서 各國政府에 대해서 積極的이고 強力한 提案이나 忠告를 할 수 있는 團體는 U.I.A. 以外는 없다고 생각한다.

各國의 人間住居施設의 不足은 人類的 가장 切實한 重大問題인데 어떤 나라들은 이에 대해 아주 等閑視하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不幸하게도 韓國도 이의 例外는 아니다.

日本의 著名建築家인 丹下氏도 U.I.A. 大會에서의 講演에서 世界는 未久에 住居施設問題가 닥쳐올 것이고, 今後20年內에 人類는 過去 2,000年 동안에 해놓은 것에 該當하는 住居가 量的으로 必要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이 重大한 問題를 解決하는데 한가지 方法 以外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即, U.I.A. 같은 巨大한 組織이 앞장서서 全世界의 建築家들이 合心할 것과 U.I.A.는 各國政府나 爲政者들을 說得乃至는 具體的인 提案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고, 國際協力下에 資金調達, 技術協力, 地域分配 등을 U.I.A.의 所管下에 이룩하고 建築家들의 指揮下에 各國政府가 實踐하는 方法 以外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때 建築家들의 社会的, 國際的 地位가 確保되지 않으면 이 일은 勝算이나 效果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建築家들의 社会的 地位 確保에 대해 小兒的인 생각 即, 藝術創作, 制作權確保, 料率引上, 專門家待遇, 技術의 價值性 등으로 莫然히 바라고 있을 뿐이나 이 問題의 捷徑은 무엇보다도 國際協力下에서 組織과 義務의 比重으로서 다루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MACHUPICHU憲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約2年前 케루의 建築家들이 主動이 되어서 Inca 文明의 遺址인 “MACHUPICHU” 頂上에서(海拔 6,400m) 各國의 建築家들이 모여서 約40余年前 C.I.A.M이 提唱한 아테네憲章(建築 및 都市計劃에 대한)을 補完하는 作業을 했다.

이것은 前記한 아테네憲章을 廢棄하자거나 否定하자거나 不是이고 社會와 人類的 生活의 變化에 따라 自動的

로 追加補完해야 겠다는 起案된 文案으로서 이름하여 M-ACHUPICHU憲章이라고 했고 이 文案은 13次 MEXICO에서의 U.I.A大會에도 提出되었고 若干修正後, 1981年 폴란드 바르샤바 大會에도 正式採択되면 公布될 것으로 안다.

40余年前 C.I.A.M이 西歐文明의 요람地인 아테네에서 公布한 建築憲章이, 一方 또 하나의 民族의 古代文明의 遺蹟地인 케루에서 補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면서도 偶然的인 因緣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人類文化發展에 관한 이런 憲章들이 先人들의 文化遺蹟地에서 發案되었다는 點에 더욱 社會性 또 希望的인 予感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 “世界的인 建築家の 選定方法”

近者 우리 社會에서는 建築主들이 設計者選定方法이 어떤 習慣化, 常識化된 方法 即 5~6名의 建築家에게 指名懸賞競技를 시키는 方法이다.

原則적으로 볼때 設計者の 選定은 建築主들의 自由裁量에 있다. 다만 그 建物이 公益性이나, 公共性 또는 建築主가 널리 優秀案을 求得하는 方法으로 懸賞設計 競技가 發生했다고 본다.

이런 경우 여러가지 副作用들이 發生한다. 審査의 公正性의 缺如라든가, 審査委員選定問題, 応募者에 대한 報酬問題, 制作權問題等 想像外의 難問題들이 介在된다.

以上은 全般的인 問題들이지만 建築主로서도 雜費, 報酬節次, 時間性 등의 難點이 있고 建築家側에서도 過剩競爭(原則은 善意的인 競爭, 過多出血(1人의 榮譽로 多數의 建築家의 出血) 射幸心理, 審査에 대한 不信 등 등의 複雜한 問題들이 도사리고 있어 이런 問題들을 解消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方法論이 考案되어 오늘의 U.I.A의 國際懸賞設計競技規準 등이 國際的으로 通用되고 있으나, 國內的으로 는 各國의 事情에 따라 差異가 많다. 우리의 境遇도 이런 것들을 勘案하여 數年前에 三團體建築懸賞設計 競技規定을 制定해서 官民의 理解와 協助를 期待했으나 좋은 反應을 얻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 問題는 前記한 建築家들의 社会的 地位問題와도 密接한 關係가 있는 일이고 보면 國際的으로는 어떤 方法이 通用되고 있는가를 살필 必要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U.I.A.의 國際懸賞設計競技規定은 大略 여섯가지 方法을 提示하고 있는데 原則적으로 ① 審査의 公正 ② 応募者의 資格. ③ 制作權의 絶對性 ④ 報酬와 待遇의 限定 ⑤ 審査員의 資格과 選定 ⑥ 審査의 方法 등의 緬密한 解說規定으로 制定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各國은 自國의 特殊한 事情을 勘案해서 國內規定을 U.I.A規定에 準해서 만들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基本原則이 될 U.I.A規定도 近者에 補完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即, 応募建築家は 建築家그룹이 推薦한다든가 審査에 市民의 姿意의인 意識을 參與시킨다든지, 段階的으로 応募者를 縮少시켜가는 方法 審査方法에도 各樣各色으로 採点・投票・擧手・拍手・感度側定 甚至於는 COMPUTER 로의 審査等等 奇想天外的 方法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할망정 可及的 多數의 建築家가 最少의 出血로 善意的 競争에 臨할 수 있는 段階的 懸賞方法을 挾함이 可 할 줄이나, 近者에 와서는 가장 誤解를 일으키기 쉬운 特定人(固定된 數名)들에게만 指名式으로 하는데에 여러가지 異意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業情은 우리社會는 무엇인가 公共, 公正, 公明性에 대해서는 拒否反應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것은 웬 일인지 알수가 없다.

建築設計를 入札로 하겠다는 心理나 設計者選定은 優秀한 作品을 얻겠다는니 보다 監査에 대비로 아는 公務員이나 或은 設計報酬의 低廉으로 選定되기를 바라는 建築家나 建築主가 있는 限, 建築文化라는 따위의 말이 成立되지 않을 것이다.

近者 우리 周辺에서 잘 팔리는 建築家치고 많고적고間에 上記한 條目에 該當 안되는 者가 果然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하면 알만한 일이다.

#### ‘建築의 社會文化에의 貢獻’

1979年 建築士誌에 本人이 寄稿한 中南美旅行文 末尾에 確實히 會員諸位의 要請이 있다면 MEXICO, U.I.A. 大會時 5人의 講演者中の 日本人建築家 丹下健三氏의 演說文을 翻譯해서 掲載할 用意가 있음을 밝힌바 있으나, 幸인가 不幸인가 要請해온 會員은 1명도 없었다.

當時 나의 생각으로는 會員 여러분이 ‘그런저 興味없다인지, ‘日本人建築家가 무어야라는 國民感情의 爆發인지, ‘그程度의 內容은 다알고 있다인지, 매우 錯雜했다.

그러나 이 글의 題目이 ‘昨今の 建築의 國際的狀況 과 傾向, 이기에 그의 레포트內容이 바로 이 題目의 趣旨을 充分히 說明해 줄수 있는 內容이기 때문에 이 機會에 敢히 쓰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大會場에서 이講演이 끝나고 丹下氏가 下壇하자 滿場에 拍手가 雨雷같이 터졌고 各國의 建築家들이 그에게 물러가서 SIGN을 받느라고 아우성이었다. 그때 나는 그가 마치 映画俳優나 무슨 STAR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羨望의 対象이었던 것도 率直히 말할 수 있다.

以下는 ‘建築의 社會文化에의 貢獻, 이란 演題의 丹下氏의 1978年 10月 U.I.A MEXICO大會에서의 丹下레포트 全文의 內容을 옮겨 보기로 한다.

現代世界의 多樣한 國家體制, 經濟시스템, 社會構造나 그것들의 相互關係는 너무 多極化되어 오직 東西問題라든

지의 單純한 構造가 아니고, 더욱 複雜한 것으로 되어 있다.

一般的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第1, 第2, 第3世界라고 하는 單純한 카테고리로 性格을 附與 시킨다는 것은 到低히 不可能할 程度로 複雜해 졌다.

그러나 이러한 多樣性에도 不拘하고 各國家나 地域이 單獨으로 活動하지 못하고 相互가 複雜하게 連結되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現代世界의 一般壯況을 놓쳐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1年 程度 지나면 1980年代가 始作되려고 하고 있다.

至今1970年代를 回顧해 보면 이10年은 世界的 規模로써 政治 經濟 社會, 文化에 이르는 広汎한 領域에서 커다란 變化가 보여지는 時期였었다.

1960年代의 先進國은 그들의 經濟를 急速히 成長시킨 反面에 그 成長은 모든 種類의 內面的 스트레스나 害로운 副作用, 例를 들어 自然環境의 破壞와 오염, 住環境의 質의 低下, 貧富의 國際的 格差 等等을 더욱 顯著하게 했고, 南北問題를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狀況에 대해서 로마클럽의 成長의 限界(Limit of Growth)는 1960年代의 急成長에 碎해 있는 先進國에 커다란 衝擊을 주었다.

그들의 研究의 目的은 이대로 技術의 進歩나 經濟成長이 持續된다면 긴 眼目으로 보아 어떤 結果가 地球上에 到來할 것인가였다.

結論은 地球의 破壞이었다. 이런 일은 先進國에게는 큰 衝擊이었고 警告였다.

이 問題의 答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제로(○) 成長까지 提言했던 것이다. 1972년에 行해진 國連(U.N) 主催의 스톡홀름에서 世界環境會議에서는 本來는 두가지 面이 論議될 것이었는데 即, 自然環境과 人工環境(man made environment)이었다.

그러나 主된 討論은 自然環境의 汚染에만 集中해서 人工環境, 特히 居住施設(Habitat)에 대해서는 論할 余裕조차도 없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地球를 救하자」라는 宣言을 하고 會議은 끝날 程度였다. 거기서는 先進諸國은 自然環境의 汚染에 대해서 그것을 發生케 한 技術의 ‘스트레틱, 한 進歩나 經濟의 發展에 대한 強한 反擊이 市民參加運動의 形式으로 台頭해서 大規模開發에 대한 環境 ‘아세스먼트, 가 더욱 嚴하게 되고, 開發 即, 破壞라는 市民意識이 漸次 強하게 된 面만이 지나치게 強調되었을 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開發 即, 破壞라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先進國에서만 云謂될 일이고 發展途上國에 대해서는 當然히 다른 생각이 必要해져야만 할 것이다.

그 會議에서도 이미 南北問題가 顯著하게 始作되었다.

第3의 世界의 各國의 關心事는 오히려 技術進歩이고 經濟發展이고 또 環境을 어떻게 더 좋은 水準으로 할 것

인가였고 '우리들에게 公害라고 할 것은 오히려 貧困自体이다'라고 말하게 했다.

그들에게 必要한 것은 急速한 經濟成長이요, 더욱 進歩된 人工의 居住施設의 建設인 것이다.

世界的으로 經濟的差異는 價值觀의 對立으로 나타났고 U.N總會에서도 世界의 새로운 經濟秩序가 提起되어 關心은 그 格差를 어떻게 적게 해 가느냐라는 點에 集中되었고 이 問題意識은 이미 1973年 제 3世界의 80余國의 國王, 大統領, 또는 首相들이 '알지예'에 모여서 開催되었던 非同盟首腦會議에서 論議되고 있다.

關係者間에서는 이 '알지예'會議는 世界秩序를 大變시킬 程度의 歷史的意味를 가질 것이라고 予側하고 있었다.

그 後 數個月後인 1973年末에 先進國에 커다란 經濟的衝擊을 준 所謂 石油危機가 왔고 繁榮을 꿈꾸는 나라들의 經濟는 破壞될 것 같이 보였다. 한편 產油國들의 經濟는 一擧에 豊富해지고 建設의 '템포'는 눈부실만한 것으로 되어갔다.

이것은 새로운 國際的秩序(New International Order)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멀다해도 그것으로 向하는 契機가 된 것은 確實하다.

U.N은 1972年 世界環境會議에 論議할 機會를 잇은 人工環境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人間住居環境 HABITAT 1976을 캐나다, 방쿠버에서 開催할 것을 決定했다.

그러나 이 會議에서도 世界의 새로운 經濟秩序, 即 世界의 貧富의 格差를 短縮시키지 않고서는 解決할 수 없다는 政治問題로 發展해 버려 다시 1976년에 開催된 로마-크렘會議에서 J디바-젠教授에 의해 構成된 그룹에 의해 事務的으로 報告되었던 'Reshaping the International order'에서도 이 問題는 多角的이고 또 프로그래마틱했고 그 現實的인 解決策을 救하기는 至難하다고 말하고 있다. 本人도 그 會議에 參席할 機會를 얻었으나 그 레포트 중에서 몇가지의 '데이터'를 밝히고자 한다.

1973年度의 世界人口 38億中 1人당 G.N.P가 200\$以下の 人口가 20億以上の (非產油) 國 第3世界에 있는 한편 3,000\$을 넘는 人口가 6億으로 主로 第1世界와 第3世界中的 產油國에 살고 있다.

이러한 格差를 적게 하고 더욱 公平한 世界로 再形成해 가기까지는 아직 遼遠하다고 생각된다.

또 人口增加問題도 있다.

現在40億의 世界人口는 남은 20年間的 20世紀末에는 70億이 될 것이 予想되고 그間的 都市化人口를 新生30億에 더하면 아마도 30億人余분에 相當하는 Habitat (住居+都市施設)을 20年 사이에 해야 한다는 實現問題가 된다.

이 30億이란 數字는 거의 現在 人口와 같은 程度이다.

이 時點에서 무엇인가 行動을 取하지 않는다면 世界의 大政治問題가 될 것은 틀림 없다.

食糧에 관해서도 더욱 必要로 하는 곳에 그것을 分配하

는 役割을 하는 國際機關이 이미 있으나 住居에 관해서는 아직 存在하지도 못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들 建築家는 이 問題에 眞摯하게 対処해야만 하겠다.

때로는 이 問題는 討議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結果를 얻지 못한다. 또 建築家는 建築家만으로 Habitat의 危機를 解決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다.

그러나 建築家는 어느 누구보다도 危機到來를 切實하게 알고 있고, 그것은 人類的으로 어떤 危機라는 것을 具體的으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기에 建築家는 이 Habitat의 危機를 救하기 위해 世界에 呼訴를 繼續할 義務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本人은 'World Habitat Fund'(世界住宅基金)이란 것을 創設할 것을 提案한다.

先進國은 그 G.N.P의 0.3%만을 現實的으로 國際援助에 寄與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充分치 못하나 더우기 그 大部分은 工業開發에 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人間이 살고 生活해 가는 일은 工業化보다 더 重要한 일인 것이다. 따라서 國際援助基金이 더욱 Habitat에 使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單純한 計算에 依해서도 어떤 經濟學者가 提言했듯이 先進國의 大部分의 나라들이 國際援助를 위해 적어도 1%는 割當 받아야 한다. 即, G.N.P의 1%는 이基金에 投出했다고 해도 20年間最貧地域의 一家族에 대해서 約 1,500\$程度의 住居資金의 援助가 可能한 程度 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HABITAT問題는 오직 經濟的인 것만은 아니고, 이와 맞서나아갈 技術을 開發한다는 問題도 있다.

勿論 사람들은 自己의 勞動力과 自然材料, 粘土, 木材 등으로 自力建設할 수 있는 技術을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上記의 資金援助는 Habitat의 危機를 解決하기 위한 最少 必要額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各 地域의 國際協力 또는 援助단에 依하지 않고 應建設의 方法을 그 自然的 特性과 資源과 經濟의 狀況에 依해서 스스로 案出해 내야만 하겠다.

現在와 比較해서 幾百分之一도 되지 않는 GNP 1人당이라고 생각되는 中世時代에도 氣候나 風土, 習慣에 따른 一定한 住居方式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美的으로도 感嘆할만한 시골 村落을 만들었고, 現在의 우리들 눈을 휘둥글게 하는 住居들이 世界到處에 存在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確實히 그 村落 또는 地域社會 自体의 훌륭한 表現이었다. 나의 論點은 이제 겨우 社會文化의 次元에 들어온 것뿐이고 그 社會文化의 次元은 經濟發展段階나 經濟水準에 반드시 比例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強調하기 위해 上記의 例를 든 것이다.

그러나 反對로 오늘날 建築家 自身들이 建築에 대해서

一般市民의 한사람 밖에 안되는 것처럼 自己卑下 시키고 未來를 再形成하는 力量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建築家로서 特殊한 責任과 任務를 放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建築과 都市計劃의 領域에서의 社会文化發展에 대한 建築家の 貢獻을 한번 더 높이 評價하고 싶고 더욱 자랑스러운 矜持를 가지고 맞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나는 近代建築과 都市의 發展을 簡略하게 回顧해 보고 싶은 것이다.

그 積極的인 貢獻의 좋은 一例가 C. I. A. M.에 의해 草稿된 1933년의 아테네憲章이다.

나 自身이 建築과 都市計劃에서의 '機能概念'은 近代建築과 都市에 큰 衝擊을 주었다고 確信하는 것이고, 現在도 아직 通用할 수 있는 것이라고 強調하고 싶다. 또하나 印度는 決코 豊富한 나라는 아니지만 네루首相의 決斷에 의해 편-잡주의 首都찬디갈을 르·쿨뷔제를 데려다 計劃設計시키고 建設한 것은 特記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테네 憲章의 適用의 成功한 例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편 브라질도 工業化로 向해 出發하자마자 時期에 루치오코스타와 오스카니마이아의 協力에 의해 先進國의 計劃技術과 建築技術을 驅使해서 計劃·設計·建設한 브라질 中央部の 開發據点으로서 新首都 브라질리아는 偉大的 文化形成의 結實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너무나 PLANNING이 지나쳐서 人間的 SCALE을 超越한 都市라고 批判되어 왔지만 現在만은 브라질리아 市民은 漸漸 살기 좋아졌다고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建設이 始作되고 20年間, 居住者에 의해 自發的으로 都市의 '아메니티'가 이루어진 것이고 建築家の 計劃과 市民의 이러한 自發的 建設이 相互하모니를 가지고 共存해 갈 수 있다는 것을 充分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 내가 찬디갈과 브라질리아를 例를 든 것은 이러한 近代建築과 都市의 理論과 技術을 大膽하게 導入해 가는 것도 必要한 일이고 그것은 印度와 브라질 全体의 Habitat의 危機를 解決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解決에의 刺戟을 주고 世界建築家들에게 勇氣를 주었기 때문이다.

數年前 나는 PARIS의 OECD의 本部에 招待되어 産油國과 先進國과의 相互技術協助에 대해 討論했다.

내가 거기서 強調한 것은 英國은 250년 걸려서 農業社会에서 工業을 거쳐 Computer社会로 發展해 왔다.

美國은 그것을 200년 걸렸다. 日本은 100년程度 걸렸다. 現在 産油國들은 이와같은 일을 30년이나 40年間に 하

려고 하고 있다. 라는 것이었다. 勿論 그들 國家는 먼저 걸 어간 다른 나라들과 같이 內的 스트레스나 汚染의 問題는 經驗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變革을 急速하게 하는 것은 可能한 일이고 아니 더 必要한 일인지도 모른다. 熟考해 보면 하나의 社会가 技術的 構造를 發展시키는데는 두개의 方法이 있다.

하나는 既存 社会基礎를 技術이 向上시킬 수 있는 点까지 發展시키는 일, 또 하나는 先進國에서 頂上級의 技術을 導入하는 일을 먼저하고 後에 徐徐히 漸次的으로 發展시켜 간다는 方法이다.

日本이 取한 方法은 어느쪽이나 하면 後者를 択한 것이다.

이것을 發展途上國이 取할 方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建築과 都市는 이제까지 不動産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찬디갈이나 브라질리아에서 이루어진 것은 새로운 더 發達된 文化가 移植되었다는 두개의 좋은 例이라고 생각한다.

建築家로서 世界中的 HABIAT 危機와 싸우면서 우리들의 都市의 移動 可能性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資源의 移動과 技術의 NOHOW의 移轉을 意味하는 것이기때 문이다.

그러나 이 問題는 오직 技術的인 問題는 아니다. 르·쿨 뷔제나 20世紀의 開拓者들은 오직 機能主義라고 불리우는 데는 더 幅넓고 깊고 偉大했지만 그러나 아테네憲章에 나타나 있는 개념과 方法論은 明確한 機能主義者의 宣言이었다는 限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近代建築과 都市를 본다면 個個의 個體의 内部的機能의 主張, 企業의 自己主張 建築家の 個性의 主張, 그리고 價值觀의 多樣化에 應해서의 네오크라시즘이나, 매너리즘의 多彩로운 形態에서 POP Art의 建築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多樣的 建築으로 都市를 채우고 있고 全体의 關係를 發見하기 困難할 程度로 되어 버렸다. 萬一 우리들이 이러한 純粹한 機能主義者의 아프로치를 追從해서 各個의 機能에 表現을 代與시키는 試圖를 한다면 우리가 達成해낼 것은 오직 카오스(混亂狀態) 밖에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들은 基本的인 必要로 未來에도 存續시킬수 있는 機能만을 挾해야 하겠고, 그런 機能을 쉽게 認識할 수 있는 典型的인 表現(Expression)을 代與해야만 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可能한 오직 唯一의 機能的 아프로-치란 '機能의 典型化' 또는 '典型化된 個性性'이라고 불리워질 것이며 個人的인 獨斷的인 것은 決코 아닌 것이다.

中世의 거리는 그 나름대로 公共的인 次元을 가진 建物들이 形成되어 있었고 道路가 그들에게 構造를 附與시켰

고, 広場이나 教会, 市庁舎가 全体를 인더크레이드할 程度로 象徴的인 意味를 가지고 있어 全体는 自生的으로 形成되었는데 不拘하고 Community構造를 反映하는 構造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이構造概念(Concept)이 아테네憲章에 缺如된 것이었고 建築이나 都市를 생각하는데 不可缺의 개념(Concept)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言語의 例를 들어 説明코자 한다. 言語 하나하나의 말(WORD)은 各各 機能과 個性을 가지고 있으나他 言語와 組合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意味의 傳達할 수 없다.

어떤 一定方法으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말의 純粹言語學的 意味를 傳達하고 말의 形而上學的 水準으로 構成되면 그때 言語는 詩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이바네틱스,의 워너博士가 말하기를 어떠한 関連도 두개의 카테고리에 따라 定義될 수 있다. 하나는 에너지의 或은 物理的 組合이고 또 다른 하나는 情報的 或은 非物理的인 組合이다.

이들 두개의 카테고리는 同一하게 建物이나 都市에 符合된다. 簡單한 例를 들면 覆道는 建物の 重要한 構造이고 스페이스間的 物理的인 바쿠가 되어 있다.

覆道を 통해서 여러房으로 情報傳達이 이루어지고 있다. 階段이나 에레베이터를 包含하고 있는 垂直샤프트도 같다고 생각해도 좋다.

都市에 있어서의 道路나 広場이 物理的, 情報的 채널의 役割을 하고 있다.

아테네憲章이 草稿되고 30年間에 技術은 人間의 想像를 넘을 程度로 變革되었다. 그것은 物理的인 輸送만이 아니고 텔레콤뮤니케이션이나 오레오비듀알 등에 있어서도 같다.

都市란 當時 생각하고 있던 것같이 오직 하드웨어를 生産하는 場이라기보다 오히려 情報를 만들어 交換하는 場이 되었다. 이와같이 近代都市와 建物の 構造에 있어서도 커다란 變化가 보여지고 있다. 物理的 情報的 構造의 概念을 近代都市와 建物を 위해 創造한다는 問題야말로 建築家나 都市計劃家들이 오늘날 맞서 나아가야 할 가장 重大한 問題의 하나인 것이다.

構造라는 것은 同時에 關係(Relationship)을 意味한다. 서로 다른 機能間的 關係를 이루어줄 뿐 아니라 휴먼 스케일 메스휴 맨스케일과 近代技術에 의해서 갇어온 메가휴먼스케일間的 相互關連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 長期的으로 持續하는 메가스트락취와 短期間에 消滅하는 적은 要素와의 사이를 關連시키고 또 낡은것과 새로운 것과의 사이 또는 自然的인 것과 人工的인 것 間에 무엇인가 人間的인 關連을 만드는 것, 또 各樣의 要素를 都市의 유닛-或은 커뮤니티의 유닛-에 인더크레이드시키는 것같은 現代의 心構을 創造하는것도 重要한 課題라

고 생각한다.

PERU의 建築家가 世界各國의 建築家들에게 불러일으켜 1977年 MACHUPICHU憲章의 草案을 만들었다. 그 속에서 아테네憲章은 現在의 時点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提案하고 있다.

이러한 現代에 알맞는 憲章을 制定하는 自發的 努力과 그過程은 大端히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U.I.A는 國際的 建築家들의 모임이고 그 自体는 非-로그라테믹한 組織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内部에 이러한 自發的인 運動을 옹호하고 나간다는 것도 重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테네憲章을 추대하고 建築이나 都市Design의 方法論 다른 말로 한다면 文化形成, 環境形成으로 向하는 公分母를 發見하도록 協力하고 典型化된 個性을 形成해서 心構을 形成해서 또 構造를 發見하도록 協力하고 있는 그룹들에게 士氣와 勇氣를 북돋아 주는것도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建築의 社會的側面에서 보아서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될 다른 側面은 建築家의 質을 向上 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質에 관해서 第1의 問題는 建築教育인 것이다. 몇개의 나라의 建築科의 學校는 大端히 質이 낮다. 특히 經濟成長이 急速했던 1950~1960年代에 너무도 安易하게 建築教育은 매스푸로화해 버렸다.

뿐만아니라 그러한 教育은 엔지니어링 쪽에 偏重해 버리고 藝術的 Design의 質은 大端히 낮은 것이 되어 버렸다. 또 때로는 社會, 政治問題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Design自体의 訓練을 게을리 하기가 쉬웠다고 본다.

이 일에 관해서는 U.I.A가 해야 할 일은 世界中的 學校의 建築科에 대해서 어느 水準까지의 스펠다-드를 決定해서 그것을 各國政府, 各大學에 레코멘트 하는 일이라고 나는 굳게 確信한다.

또 하나의 問題는 그 社會에서의 建築家의 職能的인 社會的 地位인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建築建設業者와 建築家間的 또는 技術者와 建築家間的 區別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注意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또 너무도 過當한 競爭 때문에 設計料를 덤핑하고 或은 建築家가 設計料의 高低로서 競爭하게 하는 要請에 應하고 있는 現實은 建築家가 스스로 卑下나 劣等視하는 일이 되겠다. 안된 이야기지만 日本도 그 例外는 아닌 것이다.

U.I.A로서 우리들 建築家의 職能的인 基準을 明確히 하고 모든 參加國의 政府나 그專門的協會에 레코멘트를 보내야만 할 것이다.

概念이나 公分母를 發見해서 建築家의 質과 社會的地位를 確立시켰을 때만이 現代建築家は 地域이나 國家를 위해 社會文化의 發展에 貢獻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確信하는 바이다.